

강진군, 상반기 불금불파 개장 준비 박차

오는 4월 3일 개장, 불고기·공연·체험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 풍성

지역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음식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강진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가 오는 4월 3일부터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2월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행사 준비 회의와 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준비 상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안전·위생 관리, 홍보 전략,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불금불파 행사는 지난 3년간 방문객 38,454명, 판매실적 6억 3천 1백만 원, 문화예술체험 인원 17,689명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시장 상권과 지역 콘텐츠를 결합해 '먹거리·공연·체험·관광'이 한 번에 이어지는 구성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권에 활력을 더해 왔다.

올해 먹거리 운영은 지역조직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불고기 판매는 병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불고기사업단에서 진행하며, 위생·원산지·안전관리 등 기본 운영 기준을 강화해 신뢰받는 먹거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로컬브랜드 사업과 연계해 방문



형 프로그램인 '병영 한골목길 돌담투어'를 운영한다. 투어 프로그램은 병영 문화관광지 방문 → 한골목길 산책 → 맛집 투어 순으로 구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시장과 마을 골목상권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을 넘어 "보고, 먹고, 마시며, 머무는" 야간 콘텐츠로 병영권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문화공연은 기존 EDM 중심 구성에서 변화를 주어, 상반기에는 '스페셜 웨딩·원장르' 방식으로 월별 테마에 맞춘 단일 장르 집중형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4월은 '봄의 낭만'을 주제로 어쿠스틱 또는 재즈 장르를 중심으로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3일에는 특별가수 '씨아버거' 초청 공연이 확정돼 개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진도군 '모아드림' 연합모금 확산... 함께 만드는 행복 복지

마이진팬클럽 블루, 보훈단체, (주)씨월드고속훼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진도군 관내의 기관과 사회단체가 '모아드림'에 기탁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모아드림'은 진도군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이 협력해 지역 복지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합모금사업이다.

올해 모아드림에는 ▲마이진팬클럽 블루 10,262,280원 ▲보훈단체(월남전 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전물군경미망인회) 211만 원 ▲썬씨월드고속훼리 1,000만 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1,000만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진팬클럽 관계자는 "진도 출신인 마이진의 생일을 맞아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



신한 정신을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으로 이어가고자 모금에 동참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보훈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아드림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2억 6,200만 원의 모금액을 조성했으며, 지난해에는 330가구에 약 1억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희수 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기관과 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소외되는 군민이 없는 행복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진도군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합모금사업 '모아드림'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보성군, 읍면별 1개소 '맨발산책길' 조성 본격화

생활권 중심 12개소 선정... 건강·힐링 걷기 문화 확산

보성군이 주민 생활권 중심에 읍면별 1개소씩 '맨발산책길'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의 이용 수요가 높은 생활권 인근에 맨발 걷기 공간을 조성해 일상 속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힐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관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총 21개 후보지를 신청받아 현장 조사와 입지 여건, 접근성, 이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12개

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구간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노동면 어등산 △미력면 용지동 보성강둑 △검백면 소재지 대나무숲 △울어면 문화체육센터 △북내면 주암호변 △문덕면 투구봉 △회천면 울포해수욕장 공솔림 △웅치면 구 웅치초등학교 등 8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성읍 동운천 생태공원 △조성면 은림저수지 등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황토 포설과 세죽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노면 정비, 잡목 제거, 워터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별교읍 칠동천 체육공원 인근과 득량면 득량천 조양마을 앞 2개소는 현장 조사와 설계, 사업비 확보 등을 거쳐 2027년 도시숲 공모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맨발 걷기는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 등 건강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며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힐링 공간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은기 기자

함평군 보건소, 제25기 은빛건강대학 개강

오는 10월까지 운영... 건강한 삶·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전남 함평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함평군 보건소는 "지난 5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25기 은빛건강대학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제25기 은빛건강대학은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24회에 걸쳐 운영된다.

올해 은빛건강대학은 ▲스마트폰 활용법 ▲함평군 문화유산 알기 ▲만성질환

관리법 ▲건강생활 실천법 ▲악기연주 ▲노래교실 등 교양, 건강, 취미·소양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금의 함평을 일구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은빛건강대학이 어르신들의 몸과마음을 위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정광준 기자

곡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실시

전남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순회수리교육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를 점검하고 간단한 고장을 현장에서 수리해 주는 현

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농업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마을별 일정에 따라 순회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등 소형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한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

로 농업기계 안전사용 요령, 올바른 정비 방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간단한 부품 교체와 소모품 정비 등 경미한 수리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영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곡성/이정수 기자

고흥군,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 현장점검

2027년까지 53억 원 투입, 생태탐방로 12.2km 조성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일 금산면 적대봉 일원에 추진 중인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와 시공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공영민 군수는 사업 추진 과정과 공정을, 예산집행 현황, 공사 안전관리 상태 등을 세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공영민 군수는 "무엇보다 작업자의 안전과 사업의 완성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군의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23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생태탐방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추진 중인 사

업이다.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해 금산면 적대봉 일원(국립공원구역 외곽)에 12.2km 구간의 탐방로와 전망대, 데크길,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주차장과 화장실 조성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데크길과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적대봉 생태탐방로를 누구나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생태탐방로로 조성해, 우리 군의 생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간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햇살 같은** 맑고 밝은 마음.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작정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기어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살아있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색감처럼** **만든 것** **몇 장이나 될까** **잠시** **우울하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늠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한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만**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만** **그 자체만으로도** **만** **좋은 거라면** **만** **은 언제나 우연** **만**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